



WOOSONG UNIVERSITY

샘플 우수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성명과 사진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형식은 자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과 나의 동행

[부모님의 족적 기록하기]

비교과 프로그램 이름	부모님의 삶과 나의 동행
학과/학년	
학번/이름	
제출날짜	

I. 부모님과 의 동행

동행(同行)의 사전적 뜻은 “같이 길을 감”이다.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길을 함께 나아갈 때에 쓰이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동행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현재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 “같이”보다는 “따로”, “혼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진 동행에 대한 나의 경험을 적어보려고 한다.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은 “같이”한다는 것이다. 개인화의 반댓말 중 하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대화가 없어진 시점에서, 소통은 개인화를 벗어나게 해주는 해결방법인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가족 여행을 가지도 않고, 가끔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며 과묵한 삶을 살아왔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II. “같이”의 가치를 알게해준 어머니와의 동행

작년 여름, 간호학과 입학한 후 처음으로 병원 실습을 나가던 때였다. 첫 임상 실습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서울까지 가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었다. 학교 생활 적응을 하느라, 성적을 챙기느라, 알바를 하며 학과생활을 하느라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본가에 자주 가지 못했었다.

실습하던 중 걸려온 동생의 전화, 어머니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빠른 처치와 빠른 발견으로 증상은 없었지만, 진단을 받기 전 이런저런 걱정으로 가족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서울에서 실습하고 있는 큰딸이 걱정된다며 동생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고, 동생은 진단을 받은 후에야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신 탓인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하루에 한끼 드시기도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다.

실습을 끝낸 후, 바로 본가로 내려와 어머니 간호를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하루에 죽 반개도 못 드시는 상태였고,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것이 나와도 웃지 않는 모습이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내가 노력하여 어머니의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집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친구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가거나,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보양식을 먹는 등 나와 함께 많은 추억을 나누시려고 노력하셨다. 나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매일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면 직접 틀어주면서 같이 보았고, 어머니가 가시는 비뇨기과, 내과, 안과 등 모든 병원을 병행하며 어머니의 생활을 함께했다. 또한, 죽을 갈아서 억지로라도 먹게 하였고, 식욕을 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다. 우울증과 수면제를 처방해오신 어머니는 약을 드시면서 주무시는 동안 괴로운 모습을 보였기에,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을 줄이고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암막커튼을 샀고, 수면에 좋은 베개, 수면에 좋은 음악 등을 보이는 곳마다 찾아다녔다. 약 1달간의 노력 끝에 어머니는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고, 죽이 아닌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었다. 또한,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있는 경치 좋은 보양식집을 예약하였고, 경치 좋은 곳을 함께 다녔다.

1달간의 어머니의 삶 동행 끝에 느낀 점은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지, 같이 이야기하며 밥먹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한 학기동안은 대전과 본가가 1시간 30분 걸리지만 매일 통학하였고, 4학년 1학기과 2학기는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 내려가고 있다. 어머니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며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III.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어렵지만 가까운 사람이다. 아버지의 단호하고 과묵한 성격은 사춘기가 온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사춘기때의 나는 공부를 상위권에 유지하면서도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거나 댄스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제법 당당하고 어른스러운 나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늘 위축됐다.

나를 철없고 답답한 딸로만 보는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 앞에 서면 긴장했고, 조리 있게 내 뜻을 설명하지 못했고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강변할 뿐이었다. 내가 철이 들고 내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아버지는 일에 바빠 보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나타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나이 먹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힘들었고, 무서웠다. 늘 힘들었고, 자주 불화했고, 그 속에서 깊은 좌절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제 대학 입학 후에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런 마음에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수록 더 큰 갈등만 생겼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소보다 배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이벤트도 하고, 좋은 곳을 다니며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아버지는 과묵하고 단호한 성격이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이를 표현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채신 것 같았다.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 가끔은 귀엽지만 어색한 우리 아버지,,, 어릴때는 그 마음을 몰랐지만 대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아버지가 어릴 때 술을 드시고 오셔서 “웃어야 복이온다 우영아”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아버지는 평소에 잘 웃지 않으시는데 왜 그런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자신이 웃는 것 보다 딸인 나보고 웃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다. 딸이 웃는 것을 좋아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돌아왔다.

IV. 달라진 우리 가족의 분위기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진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집 막둥이, 두부이다. 반려견을 분양받은 후 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변화를 보였다. 밖에 두부를 안고 나가 사람들과 함께 두부를 자랑하며, 어머니도 친구 집에 가거나 산책을 갈 때 두부와 함께 동행하였다. 두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듯, 애교를 많이 부리며 우울하고 가라앉았던 우리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단체 카톡방에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두부를 분양받은 후에는 매일 아침 두부의 상태와 어머니의 사진을 함께 올려주신다. 본가에 있지 않은 동생과 나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V. 부모님의 취미 등 부모님에 대해 알아보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우리 부모님은 대개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신다. 두분 모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어머니는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좋아하신다. 가끔 어머니 차를 타고 갈 때면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시는데, 정수라 가수님 노래나 옛날 노래, 트로트 등을 좋아하셔서 그 노래들을 자주 틀어드린다. 어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던 중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어머니께 여쭙어보았다.

<어머니와 나의 대화>

나 : 엄마, 무슨 노래를 제일 좋아해?

엄마 : 엄마야 좋아하는 노래 많지~ 신나는 노래 좋아해

나 : 그 중에 자주 듣는 노래가 뭐야?

엄마 : 엄마는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 좋아해

나 :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 :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어?ㅎㅎ 멜로디가 좋아서?

나 : 그래도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ㅎㅎ

엄마 : 음.. 엄마가 젊었을 때 일을 한창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힘들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말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사였어. 그리고 오늘은 어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린

내일이라잖아?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곡이라서 좋아했지!

나 : 오늘은 어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린 내일이란 말이 진짜 멋진 말인것같아!ㅎㅎ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우리 어머니는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요즘 TV에서 전원일기를 계속 방영해줘서 어머니가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 전원일기는 무려 22년동안 방영된 푸근한 고향이 배경인 드라마라고 한다. 어머니 옆에서 같이 보곤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어린시절이 생각나고 가끔 그림다고 하셨다. 요즘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는 커녕 옆집에 사는 이웃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한 인사만 나눈다.

<어머니와 나의 대화>

나 : 엄마 또 전원일기 보고있네~ 이게 제일 재밌어?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는 없어?

어머니 : 나는 전원일기가 그래도 제일 재밌어 ㅋㅋ

나 : 이 드라마가 왜 제일 재밌어?

어머니 : 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비슷한 점도 많고 내용도 재밌어

나 : 어렸을 때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어?

어머니 : 옛날에는 강가에 가서 엄마들끼리 빨래하고 우리는 옆에서 자전거 타거나

고무줄 놀이도 하고~ 또 농사하시는 것도 돕고 그랬지. 외할머니가 장에 가서

채소를 팔러 나가시면 엄마는 같이 따라가서 국수도 먹고 그랬어. 또, 외할머니가

늦게 오실때는 저 멀리까지 마중가기도 했어 그때는 전화가 없어서 언제

오시는지도 몰랐잖아.

나 : 헉.. 거기 엄청 어둡잖아 안 무서웠어?

어머니 : 그러게.. 그때는 신기하게 안 무섭더라. 아무튼 전원일기에서 엄마 옛날에

시골에서 놀고 생활했을 때가 비슷해서 재밌어

나 : 나 그러면 외할머니댁 갔을 때 엄마 뭐하고 놀았는지 더 알려줘~

VI. 자식을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신 부모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고, 자신은 항상 뒷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또한 365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에 1/100만이라도 보답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삶과 나의 동행이라는 과제를 하며, 부모님의 삶의 족적을 기록하였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끝없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생신,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등 어떤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편지를 써서 “어버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라는 구절을 꼭 적어 내려가곤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0.01%라도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저 어린마음에 선물하나 사드리면 그게 보답하는 길이 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지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일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모님은 항상 매일 매일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고 계시는데 느끼기는커녕, 우리는 부모님의 생신,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이외에는 전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일절 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 다 키워 보내도 당신겐 그저 한 없이 작은 아이일 뿐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왜 당신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식들 걱정하시느라 하루를 꼬박 보내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까? 여하튼 나는 무엇을 드렸을까?

늦기 전에, 생각난 김에 현재 진행형의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번 나중에 내가 더 성장하면 그때 큰 무언가를 해드리면 되겠지? 어차피 지금은 해드릴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물론 여행 보내드리기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항상 자식격정에 하루를 보내시는 부모님을 단 며칠만이라도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 또한 좋은 효도방법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효도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부터라도 실천해 봐야겠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와 같이 사소할 지라도 지금 느끼는 이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부모님께서 “네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하신다. 부모님의 말씀처럼 현재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열심히 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굳은 다짐 또한 해본다.

Ⅶ. 하루를 같이 해보는 어머니와 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제가 “부모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부모님의 하루를 한 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요일이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오늘 하루는 어머니의 하루로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밤에 TV를 시청하다가 11시쯤 주무신다. 7시 전에 일어나셔서 직장에 가는 동생을 깨우고 아침을 해주신다. 7시 30분쯤 친구분과 함께 운동을 가셨다가 9시에 오셔서 집안일을 시작하신다. 반려견 두부와 산책을 하거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가는 등의 일도 하신다. 2시부터 5시에는 중학교에서 일을 하신다. 일을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를 하신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같이 저녁을 먹고 친구와 운동을 하시거나 집앞에서 만나 간단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시곤 한다. 어머니의 일과를 하루종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느낀점은 어머니의 시간 대부분은 나와 동생을 위해 쓰신다는 것이었다. 항상 집에 같이 있어도 느끼지 못했지만, 직접 하루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살아보니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살고 계셨다. 그저 짧은 운동이나 수다가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휴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수업도 많고 보강도 많아서 잠깐잠깐 해드리는 것이 다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내서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와 나의 대화>

어머니 : 오늘 나 하루종일 따라다니니까 어때? 별거 없지?

나 : 응..? 엄마 하루종일 엄청 바쁘던데.. 난 벌써 다리아파ㅠㅠ

어머니 : 우영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엄만 안 힘들어

나 : 근데 엄마는 수다떨거나 산책 잠깐 갔다오는거 말고는 쉬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아니면 TV 보거나..

어머니 : 그정도면 되지 뭘 더 바래 엄마는 알아서 잘 놀아~

나 : 그건 그렇지만.. 여행도 좀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 내가 나중에 효도할게요 ㅎㅎ

Ⅷ. 부모님의 삶과 나의 동행 과제를 마치며

과제를 하며, 부모님께 나는 어떠한 딸인지, 내 어머니로 살면서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여쭙 보았다. 우리 부모님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던 일이 잘 될 때 가장 기쁘신 것 같다. 아빠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어머니의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눈물이 났지만 꼭 참고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슬픈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어머니는 더 잘해주지 못한 점, 다른 아이들은 메이커 패딩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들은 한 두 개 밖에 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해주셔서 깜짝놀랐다. 동생과 나는 한 두 개 사준 것만으로도 매우 큰 감사를 가지고,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내릴 것 같았다. 이 과제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동행해야할 영원한 나의 삶의 멘토, 나의 인생 선배이신 부모님과 함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다.

현재, 어머니가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최종합격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간호사로 일하게 된다. 본가와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부모님을 뵈 수 있고, 병원 등

행도 가능하며 쉬는 날에는 부모님과 여행에 동행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부모님은 나의 삶에 있어 더욱 큰 힘과 원동력이 될 것이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